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8. 8 통권 제44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8
1998
제44호

편집자의 글

일관성있는 경험 정책 3

포커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와 전망 • 정창현 4

특별기고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 정책의 원칙과 추진 방향 • 최 성 9

특 집

정부의 「햇볕 정책(대북 포용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지론>

햇볕 정책은 최선의 차선책이다 • 김도태 26

새로운 남북 관계의 초석을 놓는 대북 포용 정책 • 백학순 31

<반대론>

위험한 햇볕론 • 지만원 38

북한 정세 인식과 대북 정책(햇볕 정책) • 권민웅 43

경험동향

7·12 무장 간첩 시신 발견 이후 남북 경험 동향 • 임을출 48

논 단

북한의 해운·항만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 • 임종관 54

북한의 전력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 • 정우진 69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과제와 전망 • 주강현 81

북한경제

대의 경제 관계: 최근 북일 경제 관계의 현황과 특성 • 조은호 93

통 권 제44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8년 8월 17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정균 유병규
김신덕 홍순석
류재현 이태열
박홍진 황동연
편집주간 이태섭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일관성있는 경협 정책

지난 6, 7월 연이은 북한의 잠수정 및 무장 간첩 침투 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문에서는 물밑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경 분리 원칙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분유 781 톤이 북한으로 보내졌으며, 국제 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원 사업도 재개되었다. 기업측에서는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 30여 명이 북한의 광명성경제연합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8월말 방북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부터 3일간 북한 나진시에서 국제투자상담회를 개최하며, 이를 위해 남한 기업 100 개사를 모집 중에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 7월 26일 8 년만에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이 선거후 앞으로의 시대를 「김정일의 시대」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9·9국가창건일」에 김정일이 국가 주석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잠수정 및 무장 간첩 사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햇별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보았다. 김대중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포용 정책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특별 기고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집에서는 정부의 햇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독자들이 「햇별 정책」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편, 포커스에서는 지난 7월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명쾌하게 분석하였고, 논란에서는 앞으로 남북한 경협이 확대될 때 병목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항만 및 전력 실태를 파악하고 남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남북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경협 동향을 살기로 하였다. 이 난은 남북 경협 관련 인사 등의 인터뷰, 남북한간 무역·투자 관련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협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두어달은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커나란 전기가 될 것이다. 특히, 9월에는 금강산 관광 유람선의 출항이 예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투자상담회 및 김정일의 주석직 취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 남북 경협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협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적이고 유연성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8월
편집자